

최초의 보상제도를 찾아서 청동기·철기 시대부터 중세까지



원종욱
연세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연재 순서

- ① 인류 최초의 산재와
공동체 사회의 해결법
(2월호)
- ② **최초의 보상제도**
- 함무라비 법전에
나타난 보상(3월호)
- ③ 산업혁명과 산업재해
(4월호)
- ④ 산재보험의 도입
(5월호)

구석기, 신석기 시대의 씨족, 부족 사회는 농경이 시작되면서 변화를 맞는다. 품종개선, 가축의 이용 등으로 농업 생산성이 점차 증대하게 되었고 독과 도랑을 이용해 홍수 피해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먹고 살 만한 정도였다면, 이제는 잉여가 발생하고 사회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관개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수백 가구의 협동과 이를 감독할 사람이 필요했다. 또한 양식을 저장하게 되면서 이를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도 필요했다. 기록을 위해 글자를 이용하기 시작했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천문을 연구했다. 관개시설 등 건축 기술의 발달도 이끌었다. 이러한 발전 과정을 통해 고대문명이 생겨났다. 일부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자 수공업을 하거나 생산물을 다른 지역과 교환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계급이 생겨나고, 직업이 분화하기 시작하였다.¹⁾

농업 생산성 증대가 가져온 사회 변화

사회는 더욱 커지고 복잡해졌다. 이전 시대가 공동소유의 경제 공동체이고, 계급이 없는 평등사회였다면 이 시기는 개인 소유와 계급이 나타났다. 왕과 귀족, 평민 그리고 노예 계급이다.

1) 크리스 하먼, 천경록 역, 민중의 세계사(전자책), 1부 2장, 최초의 문명, 2019, 도서출판 책갈피.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생겨났고,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력이 커지게 되었다. 권력자들은 피라미드나 만리장성과 같은 대규모 건축물을 만들며 자신의 권력을 과시했다. 이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다쳤다. 이런 대규모 건축물들의 축조는 강제 노역이나 부역이 필요했다. 그러나 강제노역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건축에는 강제노역뿐 아니라 임금 노동자도 있었다. 약 10만 명이 3개월씩 교대로 20년간 건축하였다고 한다.²⁾ 만리장성이나 피라미드와 같은 대규모 건축뿐 아니라 부족 또는 왕국의 신전이나 왕궁 등도 많이 지어졌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이 건설 현장에서 다치거나 사망했다.

청동기·철기 제련이 가져온 산재와 직업병

이 시기는 청동기와 철기를 사용하였고, 도자기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청동기와 철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들 광물을 얻기 위한 광산이 개발되었고, 구리나 철 등 광물을 제련하기 위한 화로나 용광로를 사용했다. 또한 도자기에 색을 입히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때 사용한 염료나 유약에는 구리·납·카드뮴·수은·비스무 등의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손상 이외에도 광산 개발 과정에서 노출되는 돌가루 분진에 의한 진폐증, 용광로에서 발생하는 금속 흡에 의한 금속 중독, 도자기의 염료에 들어 있는 각종 중금속에 의한 중금속 중독 등의 산재와 직업병이 있었다.³⁾

함무라비 법전에 나타난 보상

사회가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한 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문명이 발전하면서 법이 시작되었다. 기원전 3,000년경의 고대 이집트는 마아트(이집트의 정의와 도덕의 신)의 개념에 기초한 민법을 갖고 있었고, 기원전 2,200년경 고대 수메르의 통치자 우르남무는 인과관계를 밝힌 최초의 법전을 공식화하였다. 기원전 1,750년경 함무라비왕이 이보다 발전된 바빌로니아 법을 편찬하여 나라 곳곳에 비석으로 새겼다.⁴⁾ 그러나 이

2) 김문환. 유물로 읽는 풍속문화사 - (21) 노동과 보상의 역사. 문화일보. [문화]지식카페. 2018.8.7.

3) Gochfeld M. Chronologic History of Occupational Medicine. JOEM. 2005;47(2):96-114

4) 위키백과. ko.wikipedia.org/wiki/법#법제정의_역사

런 고대 왕국의 법은 귀족과 평민에 적용되고 노예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노예는 매매와 상속이 가능한 생산도구로 취급되었다.

신체 손상에 대한 보상의 기록은 고대 수메리아로부터 시작한다. 기원전 2,050년경 도시 국가의 왕 우르남부가 만든 우르남무(Code of Ur-Nammu)에 골절을 포함한 근로자의 신체 손상에 대한 금전적 배상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에게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알려진 기원전 1,750년경의 함무라비 법전(Code of Hammurabi)에도 이와 유사한 신체 손상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함무라비 법전에 따르면 고의성 없이 다른 자유민(평민)을 다치게 하면 벌칙으로 치료비를 배상하도록 하였다. 부주의하거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공공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가혹한 처벌이 있었다. 예를 들어 미숙련 의사가 환자의 팔을 손실케 했으면 그 의사의 팔을 잘랐다. 또한 신체적 손상에 대해서 신체 부위에 따라 금전적 배상이 정해져 있어서, 부주의한 행위로 손상을 받게 하면 그에 따른 배상을 하도록 하였다. 이런 배상은 일반 시민에만 적용되었고, 노예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배상이 작업장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방법으로 적용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⁵⁾

이런 신체 손상에 대한 금전적 배상은 고대 그리스, 로마, 아랍 및 중국의 법에도 규정되어 있고,⁶⁾ 고조선에도 8조 법금이 있는데, 그 중 ‘남을 상하게 한 자는 곡물로 배상한다’는 조항이 있다.⁷⁾ 이러한 고대 왕국의 법전들에서 신체 손상에 대한 배상의 규정은 산재 보상의 시초로 볼 수 있다.



Code of Ur-Nammu⁸⁾



함무라비 법전의 상단부⁹⁾

5) Gren, Joseph. History of Workers' Compensation Law: Part 1, Ancient Beginnings. 2015.08.20. leeandbrown.com/history-of-workers-compensation-law/
 6) Guyton GP. A brief history of workers' compensation. Iowa Orthopedic J. 1999;19:106-110
 7)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팔조법금. 네이버 지식인
 8) ko.wikipedia.org/wiki/우르남무_법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법전을 담은 점토판이며, 인류 최초의 성문법이다. 기원전 2,100~2,500년 사이에 수메르어로 기록되었다.
 9) 위키백과. ko.wikipedia.org/wiki/법#법제정의_역사

중세와 노블리스 오블리제

유럽 역사에서 고대 왕국은 로마제국의 흥망성쇠와 같이한다. 로마의 분열과 멸망은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에서 시작되어 이슬람의 침공으로 끝을 맺었다. 로마제국이 멸망하면서 여러 왕조로 분열되어 로마의 사회 및 과학, 문화의 발전이 정체되었다.¹⁰⁾

이 시기의 특징은 봉건제이다. 이전 시대에는 노동생산을 노예노동에 의존했다면, 봉건제에서는 농노가 담당하였다. 봉건제에서는 지역의 영주(제후)들이 왕의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고, 계약에 의한 주종제로 왕이라 하더라도 제후의 영토(장원)에서 벌어지는 일에 간섭할 수 없었다. 이민족의 약탈에 노출된 농민들이 제후에게 의탁하면서 농노가 되었다. 농노는 자영농과 노예의 줄임말로 두 계급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자신의 가옥과 토지를 소유할 수 있지만, 영주에 대한 예속이 강해 이동의 자유가 없었다.¹¹⁾ 그러나 12세기를 지나면서 농노제가 느슨해지기 시작했다. 농업생산 증대를 위해 개간 사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는데, 새로운 개간지에 정착한 농민들이 영주로부터 유리한 조건을 보장받았고 해방금을 지불하고 농노의 신분에서 벗어나기도 했다.¹²⁾

중세 유럽 주종제의 특징 중 하나는 중앙에 집중되었던 공권력의 해체와 지방분권화라고 할 수 있다.¹³⁾ 고대 왕국의 왕에 의한 통치가 끝나고, 봉건 영주의 통치로 바뀌면서 고대 왕국의 보상 개념이 점차 영주의 판단에 따르게 되었다. 일하다가 다친 농노에 대한 치료와 보상은 영주의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에 맡겨졌다.¹⁴⁾ 평민이나 자영업자는 일하다가 다친 것은 스스로 책임질 수밖에 없었고, 책임져야만 했다. 그러나 영주의 장원에서 농노로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는 경우 영주의 성품에 따라 보상을 받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했다. ☹

10) 크리스 하먼. 천경록 역. 민중의 세계사(전자책). 2부 5장. 로마의 흥망. 2019. 도서출판 책갈피.

11) 이만적. 한 권 서양사. 전자책. 4. 종교와 계급시대-노르만족의 침공. 중세를 완성시키다. 2018. 중앙일보플러스

12) 성백용. 6장. 중세 유럽사회: 농민과 귀족, 성직자. 박윤덕 외. 서양사 강좌 중[전자책]. 2016. 아카넷

13) 박용진. 8장. 중세사회의 위기와 변화. 박윤덕 외. 서양사 강좌 중[전자책]. 2016. 아카넷

14) Guyton GP. A brief history of workers' compensation. Iowa Orthopedic J. 1999;19:106-110